

# 우리의 사도적인 여정에 대한 성찰

NCC로부터 미국 CLC 공동체에 보내는 공개서한

2009년 10월 22일

## Contributors

Angelique Ruhi-Lopez , Ann Marie Brennan, Carlos de la Torre, Carmen Castagno, Carol Klosowski, Christina Kim, Christine Szczepanowski, Clare Maing, Clarence Markham III, Elena Mireles, Jim Borbely, S.J., Liem T. Le, Mary Minor, Mary Wescovich, Paula Burgan, Peter Hoang Nguyen, Renee O'Brien, Robert Costello, S.J., Steve Macy,

## Special Contributors

Alberto Britto, S.J. – Ecclesial Assistant of World CLC  
Lois Campbell – Secretary of World CLC  
Yvonne Umurungi – CLC-Rwanda

## Editing

Ann Marie Brennan, Jim Borbely, S.J., Liem T Le, Paula Burgan, Robert Costello, S.J.

## Consultant

Jim Borbely, S.J.

## Translation

*Korean*

Catherine Chung, Clare Maing

*Spanish*

Argelia F. Carracedo, Maggie Khuly

*Vietnamese*

Chau Ngo, Kim-Anh Vu, Liem T Le, Lien-Huong Vu

## 워싱턴 총회

각 국가 총회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우리를 사도적인 공동체로 양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7월에 300명 이상이 되는 이들이 워싱턴 D.C.에 모였다. 총회 때, 우리가 내건 주제는 “예언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불림을 받은”이라는 것이었고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고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공동 식별 안에서 찾도록 초대 받았다.

7월에 있는 NCC 모임에서는 총회의 은총을 돌이켜 보며 우리는 CLC가 대단한 보물이며 다른 이들과 그 보물을 나누고 싶다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생겼다. 이런 느낌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모여 적극 참여하는 동안 분명해졌다. —성령으로부터 퍼져나오는—놀랄만한 기운에 이끌리고 이나시안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CLC 회원 모두가 스스로 위로 받는 차원을 지나서 온전히 살아있고 참으로 자기 본연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워싱턴 총회는 과거 5년동안의 많은 CLC의 숭선수범으로부터 나온 움직임이 응집된 것이었다: 다민족 기구 위원회(D&O)의 노력과 피츠버그 회의, 다른 CLC의 전국 위원회 (양성, 사도적 활동, 재정 진흥, 통신)의 노력과 주어진 생활 환경 안에서 자신의 성소를 살아내는 중에 더 앞으로 나아갈 능력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피츠버그 지도자 회의에서 형성된 식별하는 범위는 공동 식별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총회에서 폭이 더 넓어졌다. D&O의 일은 “경영 구조”에 관한 관심에서 은총과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개선된 구조가 성장하는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총회에서 새 생명, 에너지, 자유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온전히 깨어있었고 온전히 우리 자신이었으며 CLC의 사도적 생명 안에서 풍성한 여러 사도적인 면들을 위하여 훨씬 더 원대한 책임을 졌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시는지 꾸준히 알아내는 것을 돕기 위하여, 총회 체험에서 한 성찰을 제공한다. 각 공동체는 앞으로 여러달 동안 이 페이지에 나오는 각 단계에 시간을 할애해 주기를 희망한다.

## 총회 과정

### 1. 우리들의 이야기와 세속적인 세상의 현실을 만나기

지난 2년간 우리는 우리의 단위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은총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총회에서 우리는 더 넓은 공동체의 역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나누면서 어떻게 하느님이 여러해동안 각 공동체를 모으시고 영양을 공급하셨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각 공동체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지였다. 우리는 미국 CLC의 은총의 역사를 하나의 사도적인 몸으로서 보다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각 단위 공동체는 더 큰 강에 -지역 CLC에서 미국 CLC로 또 세계 CLC로 드디어는 넓은 바다인 하느님에게로 - 그들의 물과 에너지를 퍼 붓는 시내와 같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를 평신도 예언직 공동체가 되도록 선택하고 부르신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즐겼다! 우리는 새로움의 느낌으로 재 충전되었다.

## 2. 몰입 체험- 우리주변의 세상에 자신들을 열기

토요일 아침에, 우리는 루완다에서 일어난 대량학살의 비극과 그 비극이 CLC 자매들이나 가족과 공동체에 준 충격에 대해 듣고는 황송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침묵함으로서 폭행이 진행되도록 방관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고 치유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우리는 몇 명의 루완다 CLC 회원들이 나라 안에서의 화해와 치유과정을 도운 것에 대해 들었다. 또, 우리는 루완다 CLC가 국가 공동체로서 HIV/AIDS에 걸려 괴로워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봉사하는 과정을 어떻게 식별해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들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 가슴에 깊이 담았다.

오후에는 우리는 단체별로 의사당에서 약 12명의 하원 대표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들을 만나고 워싱턴에 있는 특정기관을 옹호하는 방송기관을 방문 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거리와 그 날의 쟁점인 헬스케어 개선, 이민 문제 개선, 인권, 삶의 권리 환경 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이들의 권익을 지지하므로서 그들과 서로 연대 하는 공동체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 3. “열린 공간” - 문제와 가능성을 탐구하기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체험들, 폭넓은 사랑의 능력, 이기심이 없는 창조력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진심어린 염려를 하는 은총의 보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열린 공간** 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 우리의 가슴 가까이에 느껴지는 문제점들을 나누고 다같이 거기에서 생기는 가능성을 찾고자 시도 했다.

열린 공간을 사용해 마치 “열린 시장”과 같은, 회원 전원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회의를 했다.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흥미와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이들과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나누고 어떤 방도의 가능성을 꼬집어 내려고 함께 작업을 했다. 우리는 이것을 식별하는 정신으로 진지하게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아가며 했다. 이 나눔을 식별하는 집단은 우리가 무심코 우리 자신을 위해 형성한 인위적인 경계들 - 단체의 경계, 지역 경계, 나이의 경계, 환경의 경계들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열린 공간은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희망이나 비전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고 경계를 초월해서 식별하는 집단을 형성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과 사도직에 연루되기 위한 특별한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한다.

열린 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개토론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의 체험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각자를 다르게 부르셨듯이 여러가지 다른 쟁의점과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리라 기대했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가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존경심을 가지고 경청할 것을 기대했다. 우리는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말이라도 각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허락한다.

그렇지만 미국 CLC가 카톨릭 교회의 단체라는 것과 우리는 모든 인간 세상의 권위를 위해서 서 있고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 4. 열린 공간의 열매들

우리의 진지하고도 집중적인 노력의 결실은 열린 공간 저널에 같이 모아졌다. 저널에 쓰인 보고는 우리 회원들이 소중히 하는 문제에 대해 더 선명히 그려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공간 과정과 저널은 무엇보다도 첫번째로 성령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을 구체화하여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보다 더 깊이 살아내는 쪽으로 움직이며 사도적 몸으로 더 유용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우리가 사도적인 몸이 되는 여정에서 공동체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스냅사진을 제공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단위 공동체가 식별했던 문제를 두드러지게 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토의에서 관심두었던 것에 대해 더 깊은 차원에서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건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관심을 가졌던 문제들을 확인했다.

세번째는, 여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관심의 문제를 제기하고 내놓은

문제들을 조사해보도록 다른이들을 식별 집단 안으로 초대하면서 시작할때 우리 공동체를 위한 변화의 순간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봉사해줄 소위 지도자 급에 있는 다른 이들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과 총회의 열린 공간 모임 동안 나타난대로, 우리 각자가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는 주제에는 리더쉽의 자리를 떠맡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

네번째로, 열린 공간의 과정이나 저널은 단위 공동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 우리의 리더쉽과 양성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다.

## 5. 공동적인 식별

총회의 활동 중 많은 것은 많은 이가 체험하지 못한것, 적어도 총회에서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인상적으로는 체험하지 못한 공동 식별의 사용을 포함한다. 공동 식별은 CLC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냐시안 영성의 한 측면이다. 그것은 결정을 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만은 아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심적경향)이나 생활방식, 혹은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지에 대한 습관적인 태도이다. 공동 식별은 시간과 참을성, 많은 기도, 개인적으로 정해서 나온 결과를 억지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 등을 요구한다.

총회동안에 하느님의 목소리가 식별하는 공동체 안에서 확실해졌다. Capitol Hill에서의 몰입 경험과 열린 공간 진행 과정동안 우리의 공동식별은이상적인 진행의 방법이었다. 모든 노력중에서도 우리는 대체로 듣고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묻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슴에 우리자신을 내려놓으며 어떻게 국가적인 사도적 공동체로 불리울 수 있을 것인가?*

### 앞에 놓인 여정을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총회의 가르침으로 무장하며 우리의 넓은 국가 공동체의 기도와 지원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다시 계속한다. 우리 각자는 이 총회에서 받은 체험을 지역이나 단위 공동체로 가지고 가며 국가적인 공동 식별이 이미 일어난 곳에 그들을 덧붙인다. 열린 공간 저널은 각 그룹이 진행되고 있는 양성 프로그램과 다음 몇년간의 활동들을 위한 주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다.

#### 1. "열린 공간" 저널을 이용하기

총회동안 대표들은 하루종일 열린 공간에서 진행과 나눔과, 토의, 응답, 건의된

45가지 주제를 분석하는데 보냈다—모두가 성령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열려 있었다. 그 토론의 결과로 열린공간 저널은 우리의 웹사이트 [www.clc-usa.org](http://www.clc-usa.org)에서 볼 수 있다. 이 저널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도적인 몸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스냅사진을 제공해준다.

살아낸 체험과 해결을 위한 제안들이 적혀있는 문제와 관심사들이, 각 공동체에서 각 그룹의 독특한 상태를 반영하는 양성 프로그램 우선 사항을 정하는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저널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1) 읽고 기도해라: 정관 파트 1을 기도하듯이 읽어라: 우리의 카리스마**

열린 공간 저널로부터 리포트를 읽어라. 리포트는 당신에게 또 CLC로서의 경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공명을 불러일으키나? 무엇이 도전을 받게 하나?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연구해야하나?

2) 식별과 확인: 당신의 그룹에 해당되는 열린 공간 저널로부터 우선 한 논제를 꺼집어 내어 규명하라. 이 논제 안에서 성령은 어떻게 당신을 부르셨나? 당신과 당신의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3) 필요한 권한을 주고 이행하기 –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자들을 임명하라:

이 일에 대해 공동체 앞에서 이 일을 책임감있게 다룰 한두 사람을 지정해라; 그 사람들은 정보와 생활체험의투입과, 진행과 그에 따른 결과를 확보하도록 진행시키고 우리 모두가 그 체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리더쉽에 보고할 사람들이다.

총회에서 대표자들은 이 과정에서 성령의 지도를 체험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한 사도직의 몸이 되어 그를 따르는 한 길로 부르시는 것을 들은만큼 우리는 각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령이 당신의 그룹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을 부탁한다.

**2. 계속되는 양성에 대한 몇몇 원리들**

정관 4에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회원들이 사도적 증거와 헌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의 카리스마에 따라 원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불러 모은다”라고 되어있다. 그 정신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의 각 회원들이 자신감과 능력을 성취하여 이로써 전 단위 공동체가 능력과 자신감의

회복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우리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원의를 따라 전 회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양성을 장려하라. 이것은 국가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회원들과 단위 공동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 그룹이 지도받고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늘 안내할 수 있게 하라.
- 회원들이 자신들이 성장한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도와라; 단위 그룹에 CLC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라. 우리는 이냐시오식 삶으로 합하는 것이 CLC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안다.
- 다른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라. 다른 이들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해 빛을 보게 하라. 회원들이 그 그룹안에서 성령의 진짜 사랑을 느껴 더 전념할 수 있고 그룹의 더 많은 소유권을 가지도록 도와 주어라.
- 각 공동체의 회원 하나하나가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받아드려라. 다른 이들이 당신의 행동이나 표현의 방법 때문에 열등하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지 마라. 하느님은 지금 여기서 각 개인과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보다 더 민감하고 너그러워서 그들이 CLC적 삶을 사는 법을 보다 더 깊이 알고 열려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한다.

### 3. 사도적 네트워킹

하느님 백성으로 순례하는 회원들로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 먼이는 보게하고, 억압된 이에게는 자유를,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일은 물론, 우리의 태도나 말, 행동으로 모든 이들 앞에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았다.

정관 8 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사도적이다. 우리는 어디든 제한받지 않고 CLC의 사명을 가지고 파견될 수 있다. 언제나 회심하는 자세로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쇠신하고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각 사람들과 이 사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고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 어느 곳이든 우리는 파견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우리는 루완다 정치적인 결투장에서의 CLC 이야기, 워싱턴 시내로의 여행, 열린 공간에서 공동으로 한 활동,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

Catholic Social Teaching 안에서의 교육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총을 증거하는 기회를 경험했다. 이 체험들은 경탄스럽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활력을 주는 것이었다. 마지막 열린 포럼에서는, CLC는 사회 변화를 위한 대행자가 되어야한다는 우리의 갈망을 확인했다.

CLC 회원들이 하느님의 통치를 건설하는 소명을 이행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포럼이 있고 사도적 일들이 있다. 우리가 체험한대로 우리는 이 나라와 세상에 우리와 맞서 있는 많은 문제들에 공동으로 일치하여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 여기에 통신, 교육, 활동을 통하여 공동일치를 쉽게 하는 몇가지 제안이 있다. 어떤 것은 총회모임에서 나왔고 더러는 7월 NCC 모임에서 나왔는데 우리 회원들과 단위 공동체가 자체내에서 다른 공동체와 연대할 때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CLC-USA 웹사이트에 Social Action Network을 보라; 이것은 우리의 카리스마와 전문적인 의견을 근거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의 일들을 주의깊게 선택해 놓은 것이다.

- 우리의 회원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도직에 대해서 열린 공간 저널을 참조하라.

- 우리의 Apostolic Action 팀과 UN에 있는 CLC WG로부터 민첩하게 행동하는 법에 대한 반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별하라.

- JustFaith 프로그램에 단위 팀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JustFaith는 “참여자가 자신의 믿음 공동체 속에서 사회봉사에 투신하는 것을 넓히는 것을 돕는” Catholic Social Teaching 프로그램에 좋은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

- John English 신부님이 자신의 CLC의 체험을 반영한 책인 “Spiritual Intimacy and Community”를 사용하라.

- 각 지역끼리나 ‘친한 단체’끼리 참여하여 짝은 소식이나 사진이 있으면 나누는 방법을 체계화하라.

###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 우리의 관계를 ‘조직화하기’**

워싱턴 총회에서 우리는 회원들의 얼굴과, 매일 있는 아름다운 전례 속에서 다양



한 문화를 접했다---비에트남인, 라티노, 한국인, 필리피노, 아프리카인, 영국계 사람들과 더!--- 게다가, 우리는 특히 전시했던 훌륭한 포스터에 나타난대로, 우리 회원들이 참여했던 많은 좋은 활동을 볼 수 있었다.

서로서로 연결되고 자유롭고 CLC 카리스마를 살며 공동체에 속하고, 세상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세계에 더 큰 정의에 공헌하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고 느끼며 자라고자 하는 갈망들이 총회에서 선명하게 전시되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총회에서 나눈 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국가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 불리워졌는지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성소를 여러 방향으로 활짝 피우기 위해 불림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방향과 속도가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핵심을 나누며 교회 안에서 같은 카리스마를 나눈다---이냐시안 정신과 CLC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슴과 함께 그 가슴 안에서. 그 '매력'과 신비는 바로 '다양함 안에서의 하나'에 있다.

우리에게 도전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이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계하면서 유지하고 자라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사도적인 몸으로 형성되어 같이 계속 일하면서, 서로 더 잘 결속되고 풍성해지는 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피츠버그 모임의 경험과 위싱턴 총회가 우리의 매일 근본 생활을 더 깊게한 공동식별의 은총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특별한 리더십으로 움직여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 안에,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방법을 통해, CLC가 보다 더 잘 보이게 한 몫을 해야한다. 우리는 미국 안에 있는 CLC의 존재와 성장을 용이하게 하도록 서로서로 보다 더 깊이 예언직 평신도 공동체가 되는데 힘을 실어주도록 도전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 공동체의 과제이다. 미국 CLC 회원 한명 한명이 이 기업, 예언직 평신도 공동체가 되려는 이 노력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는데 촉매작용을 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일부분이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듣는 일을 더 소망하며 우리의 양성을 더 깊이하며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심장의 고통으로 움직이며 예수님의 미션을 살겠다는 것이 파티마에서 도전받은 니콜라스 신부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다.

예수님과 결합하는 이 관계는 우리의 다양한 현실 한 가운데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의 드러나는 사도적 관계의 '구조'를 힘있게 하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 앞길에 있는 여행 길에 예수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축복을 해 주시기를 빈다.